

#해시태그

주식전략.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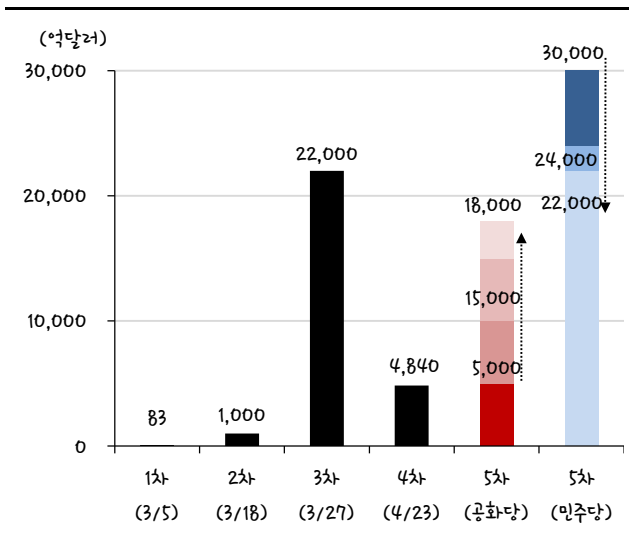


2020-12-02

해(解)답이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바이든의 경제팀을 소개합니다

미국 부양책 추이와 현재 미국 양당의 입장 차이



자료: 미국 재무부, SK 증권

바이든 정부의 경제팀 인선

재무장관
재닛 옐런 (74)
노동경제학자, 2014-2018 연준 의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지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브라이언 디스 (42)
오바마 전 대통령 보좌관, 예산관리국
국정 대행,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관리국(OMB) 국장
나라 텐튼 (50)
미국진보센터(CAP) 의장

바이든 정부 경제팀 인선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세실리아 라우스 (57)
프린스턴대 교수

재무부 부장관
윌리 아데예모 (39)
오바마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

자료: 중앙일보, SK 증권

이번에는 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을까?

므누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양책과 관련한 회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므누신 장관은 오는 12/11 까지 통과시켜야하는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부양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부양책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약 9 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한 것과 함께 나온 소식이다. 상원에 출석한 파월 연준의장도 미국 재무부의 연말 회사채 매입 등 연준의 비상대출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코로나 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통화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12월 첫 날 미국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경제팀에 대한 인선도 발표됐다. 오바마 행정부 때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대거 등용된 점이 특징이다. 예상대로 옐런 전 연준의장은 재무장관에 지명됐고,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에서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나이지리아 이민자 출신의 윌리 아데예모는 부장관에 지명되며 옐런과 손발을 맞추게 됐다. 대부분 미국 상원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예산을 조율하는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에 지명된 나라 텐튼이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인 인물로 공화당과 날선 공방을 자주 벌였다. 내년 1/5 조지아 선거결과에 따라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 그녀가 바이든 경제팀으로 활동한다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두명의 인도출신 여성이 입각하게 된다. 중국 견제와 맞물려 내년에는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만하다.